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 소년체전 땀방울 빛났다

전남, 금 20·은 13·동 33 획득
바둑 남·여 15세이하부 3연패
광주, 금 18·은 18·동 22 획득
농구 수피아여중 3연속 우승
광주·전남 3관왕 총 3명 배출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빛나는 땀방울을 흘렸다. 초·중학교 선수들이 멋진 기량을 펼치며 지역 체육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안방에서 경기를 펼친 전남 선수단은 35개 종목에 1225명(선수 768명·임원 457명)이 참가해 금메달 20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33개 등 총 66개 메달을 수확했다.

사전경기에서 김민형(전남체중 3)이 체조 남자15세이하부 철봉 금메달을 수확하며 순조롭게 출발한 전남 선수단은 강세 종목인 사격과 수영, 역도, 육상, 자전거 등에서 13개 금메달을 사냥했다.

최지우(구례여중 3)가 육상트랙 여자15세이하부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소년체전 3연패를 차지했고 김태양(완도중 3)이 역도 남자15세이하부 81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를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 특히 김태양은 인상과 합계에서 각각 121kg, 269kg으로 대회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하은(광양백운중 2)은 육상필드 여자15세이하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김



수피아여중 선수단이 지난 25~28일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농구 여자15세이하부 금메달로 3연패를 달성한 뒤 시상대에 올라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태빈(목포하당중 2)은 육상필드 여자15세이하부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송수희(여수여중 3)는 사격 여자15세이하부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에서 251.9점으로 부별 신기록으로 금메달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고 문승유(영암초 5)와 임지율(여수한려초 4) 각각 수영 여자12세이하부 평영 100m와 자유형 100m에서 금빛 역영을 펼쳤다.

대진 종목 경기에서도 메달 사냥이 이어졌다. 전남선발은 검도 12세이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손준혁(좌야초 6)이 최우수선수의 영광을 안았다. 윤서진(해제초 6)과 성유림(해제중 3)은 각각 태권도 남자12세이하부 34kg급과 여자15세이하부 4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바둑에서는 한국바둑중이 남자15세이하부와 여자15세이하부 동반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임지호(한국바둑중 3)와 악

지우(한국바둑중 3)는 나란히 최우수선수가 됐다. 추도윤(화순중 3)은 복싱 15세이하부 미들급 금메달을 수확했고 고흥동초는 소프트테니스 남자12세이하부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 회장은 “꿈나무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바란다”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좋은 결과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치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주 선수단은 33개 종목에 1034명(선수 641명·임원 393명)이 참가해 금메달 18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22개로 총 5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보다 금메달은 5개, 총 메달 수는 2개가 늘었다.

광주 선수단은 대회 첫날 강수정(광주체중 2)의 양궁 여자15세이하부 50m 금메달을 시작으로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루리(광주체중 2)는 근대3종 여자15세



한국바둑중 선수단이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바둑 남자15세이하부와 여자15세이하부 금메달로 3연패를 달성한 뒤 시상대에 올라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하부 개인전과 단체전, 계주를 모두 휩쓸며 3관왕과 함께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특히 광주가 소년체전서 근대5종 3관왕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송현서와 이지아(이상 광주체중 3), 양보민(광주체중 2)은 이우리와 함께 단체전과 계주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다은(광주체중 3)도 역도 여자15세이하부 인상과 용상, 합계를 모두 석권하며 함께 3관왕에 올랐다.

강수정(광주체중 2)과 김종연(광주체중 3)은 양궁 여자15세이하부 50m와 남자15세이하부 4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성수(광주체중 3)와 최지원(광주체중 2)은 레슬링 15세이하부 그레코로만형51kg급과 자유형92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보냈다.

또 최진영(상무중 3)은 태권도 남자15세이하부 53~57kg급, 노효림(광주체중 3)은 조정 여자15세이하부 싱글스킬, 이태민(광주에어로빅힙합댄스 전문스포츠

클럽)은 에어로빅 남자15세이하부 개인전, 광주선발은 에어로빅 12세이하부 3인조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광주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동성중이 야구 남자15세이하부 결승에서 강남중(서울)을 9-7로 꺾고 20년 만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수피아여중이 농구 여자15세이하부 결승에서 수원제일중(경기)을 77-56으로 완파하고 3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이제웅(동성중 3)과 김담희(수피아여중 3)는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선수들의 땀과 종목 단체의 지원, 학교와 학부모의 사랑, 지도자의 열정이 모두 더해진 결실이다. 지역 공동체의 지원과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체육회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학교 체육과 유소년 체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1년 자격정지’ 오지영,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서부지법, 지난 24일 결정
“징계 절차·사유·양정 등 타당”

후배 선수 괴롭힘 및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한국배구연맹(KOVO)의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와 계약이 해지된 전 배구선수 오지영(35·사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오지영의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오지영은 지난 2월 후배 선수 2명에 대한 괴롭힘 의혹을 받은 뒤 KOVO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고 구단과 계약도 해지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재심 청구 대신 소송을 제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징계 절차와 사유, 양정 등에 대한 오지영의 주장에 대해 모두 KOVO의 손을 들었다. 상벌위원회가 적법하게 통지됐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괴롭힘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이 징계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연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했으며 오지영에게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으므로 징계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지영의 후배 선수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피해 선수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들과 감독 등 제3자 진술도 모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선수들이 진밀감을 표시하는 SNS 대화가 있지만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오지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선수 생활을 완만히 이어가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년 자격정지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오지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동료 선수 괴롭힘이라는 징계 사유의 내용 및 성격,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요구되는 품위 유지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국배구연맹의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며 이와 함께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예고했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동안 파리패럴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동안(사진)이 2024 파리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8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동안이 이날 ‘2024년 화성시장배 겸 파리패럴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R4 종목(공기소총 입사) 결선에서 코오롱(경기) 서훈태와 24발 총합 254.6점 동점을 기록, 이어진 슛 오프에서 10.6점을 쏘 서훈태 10.5점을 제치고 1위를 했다.

박동안은 이번 금메달과 이전 3개 대회(연맹회장기-3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4월, 직지배-5월) 성적 합산 종합 2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한국은 파리패럴림픽 R4(공기소총 입사) 종목에 2명의 출전 쿼터를 확보해 종합 1위 서훈태와 종합 2위 박동안이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박동안은 지난해 2월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에 입단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장애인사격 최초 5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이번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패럴림픽에 출전한다.

박동안은 “광주시청의 장애인사격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2016 리우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근수 감독님의 노하우 전달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번 태극마크의 배경이다”며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파리에서 꼭 메달을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시의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의 초탄을 쏜 박동안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향후 최종 선발전이 진행되는 양궁을 비롯한 탁구, 보치아



등 광주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선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장애인사격팀 박동안, 박승우, 임주현은 같은 날 진행된 R4종목(공기소총 입사) 단체전에서 1902.3점을 쏘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해 전 대회 R4 종목 단체전 금메달을 따며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규빈 기자

시·도체육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들에 생일 선물

사기진작 위해 케이크 등 선물

광주시·전남도체육회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생일을 맞은 광주 꿈나무들에게 생일 축하 이벤트를 열어 선수들의 호응을 받았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과 임직원들은 25~28일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생일을 맞은 참가선수 배구 등 9종목 10명의 선수들의 경기장을 방문해 케이크 교환권을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가졌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과 임직원들도 같은 기간 10종목의 11명의 전남 선수들의 경기장과 숙소를 방문, 생일케이크와 간식을 전달하며 깜짝 생일축하 이벤트를 열었다.

생일축하를 받은 선수들은 “뜻 밖의 축하를 받아 매우 놀랐고 기쁘다”며 “신경써 주신 체육회 임직원분들을 위해 더욱 힘을 내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